

OPEC과 아시아의 石油需給 및 交易전망

—美國 東西센터主催 國際세미나發表文 要約—

—大韓石油協會 企劃部 調査課—

I. 아시아 및 大洋洲 각국의 概要

1. 인도네시아의 新規 精製能力

① 1980년 시점에서 본 석유제품 需要展望은 85년에 석유수요의 2/3를 輸入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産油國인 인도네시아는 석유제품을 自給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유공장 확장건설을 계획했다.

② 구체적으로 ㉠ 남스마트라의 Musi 정유공장(12萬b/d)의 근대화 ㉢ 西Java의 新規정유공장 건설 ㉡ 치과차프 및 바릭바판 정유공장의 확장(2개소 확장 후 20萬b/d)를 계획함. 그러나 이계획 成案后에 石油收入 감소 및 수요신장을 둔화현상으로 인해 계획을 축소하게 되었다. 현재 이 계획은 듀마이精油工場의 水素化분해장치 설치계획과 함께 종결되었다.

③ 이러한 정유공장 건설계획은 內需充當이 목적이지 국제시장진출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④ 때때로 수급균형을 위한 제품수출을 한다 해도 그 物量은 제한적이므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유공장을 위해 原油增産을 피하지 않는다면 제품가격을 軟化시키게 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OPEC회원국은 제품가격이 原油價

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시장에 유입시키는 것은 産油國에게는 非建設的이다.

⑤ 현재의 정제능력은 80년대 후반까지 충분하다.

⑥ 인도네시아 國內 석유제품가격이 82년에 대폭 引上되었으므로 종전의 급격했던 수요신장율은 3.2%에 머물게 되었다. 더우기 83년에도 제품가격을 引上하자 수요신장율은 0.2%이었으며, 84년 상반기도 1% 이하였다. 또한 에너지所得 彈性値는 70년대의 2.03에서 81~83년에는 0.89로 낮아졌다. (발표자: Ir. Wijaro 인도네시아 에너지鉱業相 특별고문)

〈表-1〉 인도네시아의 에너지消費狀況 및 전망

(單位: 石油換算百萬b/d)

	1983/84	1988/89
天 然 气	43.31(19.4%)	55.20(18.9%)
石 炭	1.14(0.5%)	28.20(9.7%)
水 力	11.64(5.2%)	24.30(8.3%)
地 熱	0.42(0.2%)	2.00(0.7%)
石 油	167.16(74.7%)	182.50(62.4%)
計	223.67 (約61萬b/d)	292.20 (約80萬b/d)

2. 泰國의 石油需要 변화

① 에너지需要는 88/89년에 석유환산 약 80만b/d로 확대되며 石油의 비중은 현재 75%에서 62%으로 낮아진다. 泰國은 가스개발에 주력하여 輸入石油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國內產原油 개발생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② 제품수요구성—가격정책 및 가격구조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수요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가솔린需要는 감퇴하는 반면 LPG수요가 증대하고 輕油도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表-3 참조).

〈表-2〉 태국의 에너지 需要構成

(單位: %)

	1984	1990
石油	60	45
가스	10	22
水力	7	9
石炭	5	9
기타	18	15
計	100	100
石油換算總消費量	(380千b/d)	(500千b/d)

〈表-3〉 태국의 石油製品 수요구성

(單位: 千b/d)

	1984	1990
L P G	16.99	26.60
自動車휘발유	36.20	38.90
제트油 / 燈油	29.94	36.33
航空用輕油 / 輕油	77.29	97.21
重油	53.07	28.45
計	213.49	227.49

〈表-4〉 태국의 原油等 생산전망

(單位: 千b/d)

	1984	1990
콘덴세이트 / 天然 휘발유	8	21
原油	13	21.3
計	21	42.3

③ 가솔린으로부터 LPG나 輕油로의 수요전환은 이에 상응한 정제설비의 전환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수급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가격의 誘導—輕油價格과 가솔린價格과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

④ 현재는 석유제품 自給自足を 못하므로 싱가포르에서 수입하고 있다. OPEC의 수출용 정유공장이 싱가포르를 대신하여 泰國에 공급하려면 대량의 제품을 가격경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⑤ 泰國의 原油 및 콘덴세이트 생산전망은 1990년에 42.3千b/d(그중 原油 21.3千b/d)이다. (발표자: Charan Achalabhuti 태국石油省차관)

3. 싱가포르精油産業 役割의 변화

① 싱가포르는 그동안 東아시아의 精製센타로서 기여해 왔으나 인도네시아가 정유공장 확장으로 자급자족화 하는 한편 中東의 수출용정유공장들이 가동됨에 따라 이제는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제품수요도 전반적으로 크지 못해 정유산업은 가동율과 收益面에서 저조하다.

② 아시아지역의 정제능력은 82년에 약 43만b/d 파악이었으나 90년까지 약 26만b/d선으로 축소된다.

Shell社의 설비감축, Mobil社의 1号基 사실상 廢止 등으로 싱가포르 정제능력은 85년까지 85만b/d로 감소한다. 그러나 동남아原油를 많이 처리하므로 實處理量(effective capacity)은 65만b/d정도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출가능성은 약 14만b/d로 추정되나 실재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요急増, 말레이시아 및 泰國의 정유공장 확장계획의 중지, 日本의 가동율低下, 中共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싱가포르精油産業의 장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

③ 싱가포르精油業들의 전략—㉠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을 위한 資本投入 및 에너지절약 ㉡ 中共, 말레이시아, 印度와의 기존 위탁정제량 유지 및 擴大 ㉢ 東南亞, 濠洲, 日本, 印度 등과의 거래확대 ㉣ 第3者에 대한 스왑트 위탁정제 活用(시장활성화를 위한 精製費의 조정, 產油国 및 交

易業者에게도 제시한다),(발표자 : Ng Cheng Cheng
싱가포르石油부사장)

4. 필리핀石油産業과 市場의 변화

① 필리핀은 1973年 이래 석유의존도 감축을 추진, 原子力 및 石炭의 도입이 에너지政策의 중심이다. 石油의 비중은 현 70% 선에서 88년에는 44%로 낮춘다.

② 石油수요구조는 電力·시멘트工業이 重油를 대체함으로써 重油수요가 73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방안의 하나로 가솔린稅를 인상했으므로 그 수요가 감소되었다(물론 가솔린이 輕油로 대체되어가는 영향도 크다).

수송용연료가 알콜이나 코코넛油의 개발로 대체되는 중이며 LPG로의 대체도 활발하다. 다만 LPG 價格이 높기 때문에 그 대체수준을 크게 기대하지는 못한다.

③ 石油輸出入—原油수요의 5%만 자급하며 나머지는 수입하여 정제, 국내에 석유정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重油는 이제까지 많은 量을 수입해 왔으나 최근 수요경질화로 인해 그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며 85년이나 86년에는 重油수입이 필요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장래에는 수출해야 할 형편이다. 重油 이외에는 약간의 LPG 및 輕油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것도 향후 2~3년간 정도만 계속될 듯 하다.

④ 석유수급전망은 단기적으로 균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中間溜分の 급증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

⑤ 수급불균형에의 対応—a) 가장 용이한 방안은 적당한 原油를 선택수입하는 것이나 기존계약상 제약이 있다. b) 中間溜分の 收率을 增大시킬 수 있도록 장치운전상황을 이미 변경했다. c) 2次設備 증가에 대한 投資制約을 해소시켜 비스브레이크 건설을 검토한다. 水素化分解設備는 투자액이 대규모이므로 가능성이 낮다. d) 제품수출입: 產油國의 수출용정유공장 가동으로 인해 종전과 달리 안정된 好條件의 제품공급 상황은 변화될 것이다.

⑥ 向后的 공급정책—수급불균형에의 대응책의 하나로서 많은 投資額이 필요한 2次設備 도입보다는 제품수출입 쪽을 志向할 것이다. 그렇기는

〈表-5〉 필리핀의 에너지構成

(單位: 百萬배럴)

	1983	1988
石油	68.2(69.2%)	48.8(43.8%)
石炭	3.5(3.6%)	12.2(10.9%)
水力	6.7(5.2%)	13.9(12.5%)
地熱	7.0(7.1%)	12.6(11.3%)
原子力	—	6.4(5.8%)
기타	13.1(14.9%)	17.7(15.7%)
計	98.5(100.0%) (27.0萬b/d)	111.6(100.0%) (30.6萬b/d)

〈表-6〉 필리핀의 石油需要構成

(單位: 百萬배럴)

	1983	1988
LPG	2.5	2.5
휘발유	9.1	9.0
燈油	2.6	2.2
輕油	21.6	22.9
重油	33.7	16.3
기타	5.3	4.0
計 (千b/d)	74.8 (205)	56.9 (155)

하지만 필리핀의 석유산업은 소규모이므로 OPEC의 수출용정유공장 문제에 대한 해답은 大量 소비국의 수용추세에 달려 있다.(발표자 : Rosario 필리핀 에너지쉴 차관)

5. 台灣 석유시장의 장래

① 대만은 국산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開發投資의 制約性으로 인해 일반상품의 수출을 증가시켜 低코스트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방향으로 에너지Mix를 지향하고 있다.

② 1983~2000년의 석유소비는 年平均 2.1%의 신장율이며, 가솔린과 輕油 등은 수요증가하며 重油·제트燃料·LPG는 감소해 가는 편이다. 2000년의 重油비중은 39%, 가솔린은 19%, 輕油는 20% 정도이다. LPG 비중이 1990년의 6.8%에서 2000년에 2.5%로 감소하는 것은 LNG를 도입하기

〈表-7〉 台灣의 에너지수요구성

(單位: %)

	1983	1990	2000
石 炭	17.4	32.2	34.4
石 油	61.5	44.5	34.7
天 然 氣	4.1	5.9	8.5
水 力	3.6	3.0	2.5
原 子 力	13.5	14.1	18.7
기 타	—	0.3	1.2
計	100.0 (536千b/d)	100.0	100.0

〈表-8〉 台灣의 石油需要構成

(單位: %)

	1990	2000
L P G	6.8	2.5
휘 발 유	14.6	19.2
제트油 / 燈油	2.4	1.7
輕 油	19.3	20.1
重 油	41.5	39.2
기 타	15.4	17.3
計	100.0	100.0

때문. 부문별로는 農業·가정용이 감소하고 輸送·工業用이 上昇한다.(발표자: Yuan-Kee Lee 대만 石油會社 計劃局)

6. 濠洲의 石油展望

① 總에너지中 石油은 81/82년 40.5%에서 91/92년 33%로 낮아진다. 호주는 發電에 石油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비중이 낮다.

② 석유수요는 83/84년 574千b/d에서 91/92년 628千b/d로 증가한다. 91/92년의 加솔린比重은 40%, 重油는 8.6%, 輕油는 30.6%로서 輕油비중의 확대 및 重油비중의 감소가 특징적이다.

③ 石油輸出入

④ 原油 및 粗油—수입원은 中東 82.6%, 인도네시아 12.4%, 싱가포르 2.4(粗油) 등이다. 호주는 수요구조가 輕質爲主이고 國產原油는 輕質이어서 바람직하나 윤활유나 아스팔트의 생산이 불가

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中東原油등을 어느 정도 수입해야만 하므로 原油의 자급률을 75~80%로 하여 현재 대체로 자급자족하고 있다.

83년 8월에는 國產原油판매감소로 인해 호주政府는 일정량(유조선 1척)만의 조건으로 原油輸出을 허용했다. 동시에 83년 8월부터 84년말까지 自國產原油를 적어도 38.5萬b/d를 거래하도록 요구했다.

⑤ 제품수출입—▲輸入源은 쿠웨이트 34.7%, 싱가포르 29.9%, 미국 24.0%, 기타 11.4%, ▲輸出先은 뉴질랜드 33%, 西大洋洲 21%, 東南亞 28%, 기타 18%

④ 精油事業의 문제점—a) 加솔린需要의 감소, 中間溜分수요의 증가등 현상에 대해 현재 그대로는 대응할 수 없다. b) 촉매를 변경하여 접촉분해장치를 中間溜分 극대형으로 운전하거나, 중간유분을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轉換裝置에 투자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c) 정유회사는 중간유분수요에 맞추어 原油處理를 함으로써 加솔린 및 重油를 과잉시키는 것 보다는 정제처리량을 줄이고 中間溜分을 수입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정유회사는 시장조건에 따라 나프타를 加솔린에 사

〈表-9〉 호주의 에너지構成

(單位: %)

	1981/82	1991/92(전망)
石 油	40.5	33.1
石 炭	38.4	43.6
天 然 氣	14.6	17.4
水 力 等	6.5	5.9
計	100.0	100.0

〈表-10〉 호주의 石油需要構成

(單位: %)

	1983/84	1991/92
휘 발 유	46.3	39.7
燈 油	6.9	7.5
輕 油	25.5	30.6
重 油	11.6	8.6
기 타	9.8	13.6
計 (數量)	100.0 (574千b/d)	100.0 (628千b/d)

용하고 石油化學원료는 LPG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동시에 輕油規格의 조정(완화)도 생각할 수 있다. ④ 90년대 중반에는 호주의 신규발전 油田에서 自國所要量의 대부분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이 순조롭지 못하면 새로운 2次設備 및 脫黃設備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⑤ 原油 및 콘덴세이트 輸出전망—앞으로 4년간 많은 量의 콘덴세이트 수출과 4~6萬b/d의 原油수출이 가능하다. 그 대상은 西大洋洲, 아시아, 東大洋洲의 精製센타가 될 것이다(발표자: J. R. Daley 濠州 資源에너지省 탐광개발부 차장)

7. 뉴질랜드의 石油展望

① 液体燃料—뉴질랜드는 콘덴세이트/天然가스를 생산하므로 이것이 석유의존도 감축의 原動力이 된다. 또한 合成가솔린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表-11 참조).

② 壓縮天然가스 사용확대—83/84년에 19千대의 차량이 壓縮천연가스(CNG) 사용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CNG스테이션은 196개소에다 12개소가 건설중인데 그외에 39개소가 추가계획되어 있다.

③ 合成가솔린—Mobil社가 85年末에는 合成가솔린을 생산개시할 예정으로 그 量은 年間 57萬톤

(13.5千b/d)로서 가솔린需要의 1/3을 차지한다. 이 合成가솔린은 天然가스에서 분리한 메타놀을 원료로 하는데,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가솔린과 混合 사용한다. 가격은 정유공장 가솔린의 도매가격 수준에 맞출 예정.

④ 정제설비 擴張계획—설비능력은 현재 74千b/d에서 90千b/d로 확장하며 中間유분 부족에 대처하여 水素化분해설비를 설치한다.

⑤ 수급불균형—수소화분해장치를 설치하므로 供給彈力性을 갖게 되어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국내정제가 극대화 할 경우 제품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가령 콘덴세이트를 서둘러 생산할 경우가 그러한데, 이때는 가솔린을 파잉시키기 보다는 가동율을 낮추어 輕油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발표자: J. F. Boshier 뉴질랜드 에너지省 企劃·予測部長)

II. 産油國의 輸出政策과 可能量

1. 世界市場에서의 페트로민인의 석유제품

① 페트로민은 아시아를 주요 석유시장으로 여겨왔으며 앞으로도 중요시한다.

② 輸出用정유공장 現況—▲안부정유소 84년 8월 가동 ▲쥬바일 정유소—84년말 가동(예정) ▲라비그 정유소 86년 가동예정

③ 사우디는 原油價格 안정화에 노력했으며,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서도 질서확립을 목표로 公正함을 추구한다.

④ 제품가격은 合理的인 경쟁력 유지가 중요한바,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복잡한 시장구조를 분석하여 현실적 가격을 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각종 情報誌의 수치는 그 根源이 되는 製品들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므로 그것들을 종합정리하기에 곤란하다. 그리고 實際價格은 情報數値와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매입자가 지불하고 싶은 액수는 각종정보에서 얻어진 것과 반드시 같지는 않은 것이다.

⑤ 따라서 페트로민社는 公정한 競爭價格을 의식하지만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수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석유제품시장을 포착해가는 것이다. 사우디가 제품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시장을 교란

(表-11) 뉴질랜드의 石油需給

(單位: 千噸)

		1983/84	1990/91
需 要	L P G (産業用)	15	35
	휘발유 및 그代替	1,765	1,880
	中間溜分	1,355	1,550
	重油	375	285
	計	3,510	3,750
供 給	國產壓縮天然가스	60	175
	國產 L P G	30	110
	國產 合成 휘발유	0	570
	國產 콘덴세이트	660	910
	國產 天然 휘발유	5	50
	輸入 石油 製品	1,120	15
	輸入 原油處理製品	1,635	1,920
計	3,510	3,750	

〈表-12〉 灣岸諸國 제품輸出餘力 전망

(單位:千b/d)

	휘발유 나프타	中間 溜出油	重油기타	計
바 레 인	48	83	78	209
쿠 웨 이 트	220	325	50	595
오 만		3	17	20
카 타 르	10	11	20	41
사우디아라비아	260	400	380	1,040
U. A. E	30	(25)	30	35
이 란	30?	15?	190?	235?
이 라 크	10?	(45)?	(10)?	(45)?
計	610?	765?	755?	2,130?

시키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발표자: M. A. Rahaimi 페트로민 石油가수部長)

2. 쿠웨이트의 亞細亞와의 交易

① 쿠웨이트石油公社는 自國정부에서 公式價格으로 원유를 구입하므로 비교적 원유를 안정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는 점 以外에는 다른 모든 石油판매업자와 다를 바 없다. 모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영업하는 회사이다.

② 쿠웨이트石油公社는 독자의 수송선단을 보유하고 去來의 탄력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따라서는 이러한 점이 수송비절약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

③ 석유제품시장은 소비국정부의 增稅, 석유연료의 대체,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등으로 인해(시장) 축소되고 있으므로 신규 참여자에게는 곤란한 시대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④ 쿠웨이트石油公社는 장래의 제품수요에 대비하여 정유공장을 고도화시켰으므로 수요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른 中東산유국은 새로운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東·西洋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2차정제설비를 건설하고 인도네시아도 설비를 확장, 여타국들도 제품 자족에 힘쓰고 있다.

⑤ 석유수요 상승 그 자체로 上記 설비증가분을 모두 흡수하기는 곤란하겠으나, 수출용정유공장들

은 각기 여러지역의 기본적인 한계적인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責任 있는 판매자는 어떠한 사태발생에도 대응하여 공급할 탄력성을 갖고 봉사할 것이므로 이점이 또한 기업유지와 설비확장의 기반일 것이다.

⑥ 최근의 정세에 따라 외화절약, 非石油에너지로의 전환 등의 관점에서 소비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㉔ 정유설비의 확장 및 고도화 ㉕ 장기계약으로부터 스팟트·베이스로의 전환 ㉖ 물물거래의 개시 등이다. 그러나 공급자측으로는 수요전체를 스팟트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소비국에게 不利하다고 생각한다. 공급의 신뢰성 즉 공급선의 안정확보란 중요한 점이다.

⑦ 쿠웨이트 石油公社는 수에즈運河 동편·서편 양쪽으로 收入源을 분산하고 싶다. 또한 석유업계 시장에 깊이 참여하여 이익을 얻고 싶으므로 유럽에서 하류부문을 매입하고 홍콩에서 항공연료 부문에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류부문 매입에 대해 정치적 배려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금하는 나라들이 있다(발표자: Al-Hirami 쿠웨이트石油 極東판매부장).

3. 페르시아灣 沿岸國의 제품수출餘力

① 8개 灣岸國의 제품수출가능 전망은 87/88년에 ▲가솔린 및 나프타 610千b/d ▲中間溜出油 765千b/d ▲重油 및 기타 755千b/d ▲제품합계 2,130千b/d 내외이다.

② 인도네시아의 제품수출여력은 87/88년에 26萬b/d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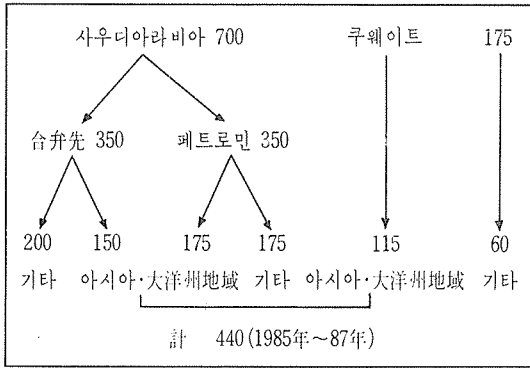
③ 수출대상국: ▲인도네시아=전량 아시아 및 대양주지역 ▲灣岸諸國=아시아와 대양주에 각각 50% 정도씩(重油의 2/3는 유럽 및 미국쪽이며 中間溜分은 대부분이 아시아쪽임)

④ 아시아 및 대양주의 신규 제품流入量은 85~87년에 약 44萬b/d 수준이 될 것이다(表-13 참조).

⑤ OPEC의 제품수출 대상은 日本이 어느 만큼 제품수입 자유화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변하게 된다. 日本이 자유화를 실시하면 다른 아시아·대양주 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않게 될 것이다.

〈表-13〉 아시아·大洋州로의 새로운 製品流入量

(單位：千b/d)



⑥ 中東 신규정유공장의 경제성 : ▲對國동 = 優位 ▲對西歐 = 약간 우위 ▲對美國 = 不利함. 아마도 제품수출국은 시장가격에 연계시켜 제품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⑦ 아시아諸國에 있어서 제품수입은 합리적이다. 아시아地域은 2차정제설비를 건설하기 보다는 부족한 제품을 수입하는 편이 옴가이다. 중동국가들은 아시아에서의 合併事業, 매입, 2차설비投資등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아시아지역은 제품수입은 물론 OPEC 산유국의 投資에 대해 문호개방해야 할 것이다.(발표자 : 美國東西센터의 Fesharaki 博士)

* 〈旬刊 石油政策 85. 3. 5〉

□ 消費國動向 □

유럽 및 日本에서 달러강세로 유가인하효과 잠식

OPEC의 공식가격의 인하효과가 석유소비국에 미치기도 전에 2월 OPEC의 가격인하는 달러 강세로 인해 그 효과가 잠식되어 버렸다. 비록 아랍경질유의 공식가격이 배럴당 28달러로 1달러(3.4%) 인하되었으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달러강세에 기인하여 석유가격이 각국 통화기준으로 7% 정도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달러강세는 油價를 배럴당 2달러 인상시킨 것이 되었다.

日本에서도 유럽보다는 그 효과가 약소하지만 달러강세에 기인하여 석유가격은 日本통화기준으로 상승하였다. 즉, 지난달 아랍경질유의 공식가격 배럴당 28달러는 엔화를 기준으로 할 때 \$ 28.68/b에 해당된다.

유럽에서 다소의 달러세 후퇴와는 관계없이, 달러강세의 석유가격에 대한 영향은 각국마다 다르다. 지난 1월 이후 달러강세로 인해 아랍경질유의 각국 코스트는 달러환산금액으로 西獨과 프랑스에서 배럴당 29.85달러, 이탈리아에서 배럴당 30달러, 英國에서 배럴당 29.20달러로 상승하였다.

동시에 달러강세는 OPEC산 원유의 평균가격이 0.25달러 높았던 1월에 비하여 1 배럴의 원유로

더 많은 양의 제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OPEC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4년동안 OPEC은 상품 및 용역의 수입선을 美國에서, 자신의 달러 구매력이 더 큰 유럽과 日本쪽으로 전환시켜 왔다.

지난달에 나타난 油價에 대한 달러의 영향은 최근 몇년간의 추세를 집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비록 세계석유가격이 1981년초 최고수준을 형성한 이후 지금까지 25% 하락하였으나, 달러강세 및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인하여 선진국에 있어서 석유의 실질 코스트는 단지 7% 정도 하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질코스트 하락은 美國에서 발생하였으며, 유럽에서의 실질코스트는 상승하였다. 그리고 日本은 1981년과 1983년초 사이에 약간의 하락을 보였으며, 그 이후는 거의 균일한 실질가격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1981~82년중 절정을 이루었던 1 배럴의 OPEC 원유 구매력은 25%의 유가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단지 10% 정도 떨어졌다. 이는 달러가치가 약세였고 석유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의 20% 하락과 비교된다.